

진안군 '소통하는 SNS' 극찬

지자체 군 부문 최우수상 주민·팔로워 중심 콘텐츠 각종 정보 실시간 전파 호평

진안군은 1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2018 대한민국 SNS 대상 시상식에서 최우수상을 받았다. 올해로 8회째를 맞은 대한민국 SNS 대상은 한국소셜콘텐츠진흥협회가 주최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정보화진흥원, 한국블로그산업협회, 한국인터넷전문가협회가 후원한다. 매년 페이스북, 블로그, 인스타그램 등 소셜네트워크(SNS) 운영 활동이 우수한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을 선정해 시상하고 있다.

군은 소셜미디어 영향력 지수(CoSBI)를 통한 정량평가(30%)와 전문가 평가(40%), 접수 기관·기업의 내부 전문가 평가(20%),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투표(10%)에서 두루 좋은 점수를 얻어 기초지자체 군 부문 최우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군은 지난해까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2개 SNS 채널을 통해 홍보활동을 펼쳐왔다. 올해부터는 블로그, 카카오톡, 트위터 등 3개 채널을 추가 개설해 확장 운영하고, SNS 채널 간 서로 연동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했다. 핵심 홍보 전략은 '감성'과 '공감'. 딱딱한 팩트 위주의 정보 전달을 지양하고 시민을 사로잡기 위한 스토리텔링 콘텐츠, 흥미로운 이미지·영상 콘텐츠로 팬들과 친근하게 소통하고 있다.

이항로 군수는 "주민 여러분과 진안을 아끼고 사랑하는 팬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사랑 덕분에 받은 의미 있는 상"이라며 "진안군 5대 SNS 채널이 마음으로 소통하는 따뜻한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주민·팔로워 중심의 콘텐츠를 적극 발굴하고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진안군 SNS 채널의 소식을 받는 방법은 각각의 애플리케이션(앱)을 열어 '진안군'을 검색한 뒤 페이스북은 '좋아요·팔로잉', 인스타그램 '팔로우', 카카오톡 '소식받기', 트위터 '팔로우'를 클릭하면 이용할 수 있다. 블로그는 진안군 블로그에서 프로필 하단에 있는 '이웃맺기'를 누르면 된다. /진안=우태만 기자

'인구소멸위험 고비' 탈출구 찾는다

무주 인구정책 종합추진계획 연구용역... 중간보고회 개최

무주군은 11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무주군 인구정책 종합추진계획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보고회는 무주군의 인구감소 문제에 대한 원인을 분석, 중장기적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진행되는 학술용역의 그간 추진상황을 공유하고 보완을 위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황인홍 군수와 실과소장, 무주군의회 유승열 의장과 군의원, (재)전북연구원 책임연구원 김동영 박사를 비롯한 연구진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연구용역을 맡아 진행하고 있는 김

동영 박사는 이 자리에서 지난 6월부터 진행된 온·오프라인 인구현황(연령대별, 지역별)을 비롯해 △출산율 및 인구이동 등 인구지표, △인구추이(혼인연령, 생산 가능인구), 그리고 △인구정책 수요를 분석한 결과를 공유했으며 △농업·농촌, 출산·육아, 산업·경제, 교육·문화, 지역개발 등 주제별에 맞는 맞춤형 추진전략과 계획 등을 제안해 관심을 모았다. 황인홍 군수는 "인구정책 추진은 결국 무주를 무주답게, 군민을 행복하게 만들기 위한 것"이라며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군민 삶의 질을 높이고 인구유입을 촉진시킬 수 있는 정주여건 개선 대책들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복합적인 인구문제에 대

응할 수 있도록 저출산, 고령화, 일자리, 농촌활력, 다문화, 도시재생 정책 등 각 분야에서 추진되고 있는 정책들을 체계화하고 연계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해줄 것을 당부했으며 농업과 관련한 청년정책, 삶의 질 개선을 통한 인구유출 예방·인구유입 유도정책, 무주만의 인프라를 활용한 특색 있고 차별화된 정책마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무주군 인구정책 종합추진계획 연구용역은 무주군이 (재)전북연구원에 의뢰해 오는 12월까지 진행되는 것으로, 이날 보고회 결과를 토대로 인구정책 방향 및 세부사업을 설정해 11월 중순 2차 중간보고와 12월 초 최종보고회를 개최·마무리될 예정이다. /무주=전문선 기자

최성용 진안부군수 지역살림 늘리기 전력

국회 방문 현안사업 필요성 피력 국가예산 지원 요청

최성용 진안군 부군수는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와 국정 현안 해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최 부군수는 11일 국회를 찾아 안호영 의원을 방문해 진안군 현안사업의 필요성을 상세히 설명하고 정부 예산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현재 2019년도 정부 예산안 편성이 완료돼 국회에 제출된 상태지만, 정부안에 반영되지 않은 신지천과 백운동

전 지방하천 정비사업 2건의 추가 국비 지원사업비 150억원의 국비 반영을 요청했다. 특히 안전면 신지천은 전라북도 지방하천 정비사업 우선순위에 밀려 미개수된 지역이다. 올해 2회에 걸친 집중호우로 인해 농경지 침수와 유실 등 재해가 발생 해 해당 지역 농민들의 국비 확보에 거는 기대가 크다. /진안=우태만 기자



최성용 부군수는 "정부 예산안에 반영되지 못했지만 농민들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은 국회 심의회가 완료될 때까지 전 행정력을 동원해 국비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제444주년 논개축제와 제51회 장수군민의 날 행사가 11일 한누리전당 일원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주논개 탄신·군민의 날 기념식 '들썩'

장수군 한누리전당 일원 1000여명 참석 화합 다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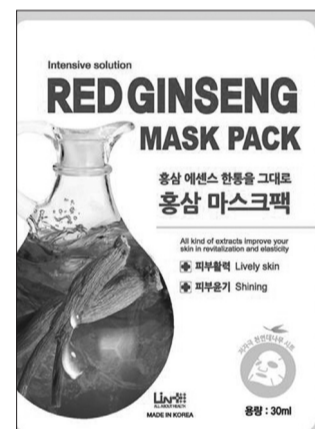
주논개의 절개를 기리고 군민의 화합을 다지는 제444주년 논개축제와 제51회 장수군민의 날 행사가 11일 장영수 군수와 김종문 장수군의회장, 신안 주씨와 해주 최씨 종친회, 기관사회단체장, 지역주민 등 1,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누리전당 일원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기념식에 앞서 의암사 영정각에서 꽃다운 나이에 순절한 논개의 애국충정을 기리는 논개 제례봉행이 거행됐다. 이어 지역의 명예를 드높이고 지역발전과 향토문화발전에 앞장서

온 군정발전 유공자와 군민의 장수상자 문화체육장 백사인(70)씨, 애향장 이정민(67)씨, 산업공익장 양석용(58)씨, 효열장 김순자(79)씨에 대한 시상식이 진행됐다. 이와 함께 제2회 전국 논개한시 공모전 시상식과 의암주논개상(義巖朱論介像)으로 선정된 문경란(59)씨에 대한 추대식도 열렸다. 종합운동장 일원에서는 마라톤과 계주, 축구, 배구, 배드민턴, 씨름, 게이트볼 등 운동 경기와 단체줄넘기, 투호, 고리걸기, 윷놀이, 제기차기 등 민속경기가 펼쳐져 군민들이 화합을 다졌다. 이 밖에도 부대행사로 논개배 바둑대회, 사진전시회, 서예와 캘리그래피 전시 공연 등이 다채롭게 열렸다. /장수=고판호 기자

진안 홍삼 마스크팩

중국위생허가 취득

진안홍삼연구소(소장 박충범)는 11일 풀뿌리기업육성사업 기업지원의 일환으로 진행한 '홍삼 마스크팩' 제품의 중국 CFDA(China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for Cosmetics) 위생허가 인증을 취득했다고 밝혔다. CFDA는 중국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국(China Food and Drug Administration)에서 주관한 것으로 인체에 사용되는 제품의 위생 안전성을 인증하는 제도다. 중국은 자국 화장품 산업 보호를 위해 수입 화장품에 대해 위생허가 인증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고 있다. 중국 현지 법인을 통해 인증을 받아야 하며 인증을 받기까지 절차도 매우 까다롭다. 진안홍삼연구소는 1년 6개월간의 노력 끝에 홍삼 마스크팩 인증을 취득하게 됨으로써 수혜기업인 (주)서연화 제품은 제3국을 통하지 않고 중국에 직접 홍삼 마스크팩을 수출할 수



는 길이 열리게 됐다. 이를 계기로 진안홍삼 제품의 우수성도 중국 시장에 적극 알릴 수 있게 됐다. 박충범 소장은 "이번 홍삼 마스크팩 중국위생허가 취득을 계기로 진안홍삼 제품의 중국과 글로벌 시장 진출에 한발 더 다가서게 됐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지역 매아리

겨울철 자연재난 대비 만전

무주군이 겨울철 자연재난 예방을 위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지난 9월 중순부터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지역과 산간 고립 예상지역 등 자연재난 취약지역에 대한 현장 조사를 진행 중이며 사전대비 기간인 다음달 14일까지는 이 지역들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함께 도로등급별 재설대행을 수립해 재설 장비와 자재도 구비할 계획이다. 본격적으로 겨울철 자연재난 대책이 추진되는 11월 15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는 상황관리를 비롯한 인명보호와 교통소통, 홍보강화를 위한 활동에 매진할 방침이어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무주군청 안전재난과 라동석 재난방재 담당은 "철저한 사전대비로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주력할 것"이라며 "취약지역에 대한 조사와 대책이 수립되면 바로 대책본부를 가동해 대응관리 체계를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무주군은 피해우려시설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위험요인을 제거하는 한편, 지역·구간별 특성을 반영한 재설대응체계를 확립해 대응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또한 기상상황 모니터링을 통해 선제적인 대응태세를 갖추고 재해유형별 국민행동요령 등 군민들이 알아야 될 정보들도 균형 홈페이지와 SNS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무주=전문선 기자

무주군 재난 재해대비 도상훈련

무주군은 11일 오전 10시, 무주군청 대회의실에서 전라북도 주관으로 무주군청, 무주군자원봉사센터, 대한적십자사지부협의회 간에 대규모 재난·재해대비 통합자원봉사지원단 운영매뉴얼 점검 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지난 6월 행정안전부에서 통합자원봉사지원단 운영매뉴얼이 제정됨에 따라, 대규모 재난발생시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기관 간 업무협력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점검하고, 운영매뉴얼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도출하고 보완하기 위해 상관관단회의와 통합지원봉사단 운영회의의 순으로 진행됐다. 지원단 설치시기는 재난현장에 대규모 자원봉사활동 수요가 증가할 때 지자체가 요청하는 경우로써 정진욱 무주군자원봉사센터장은 "이번 훈련을 통해 대규모 재난 발생시 지원단 구성기관 간 대처능력 상승과 협업역량이 강화되는 계기가 마련됐다"며 "앞으로도 통합지원봉사지원단이 보다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무주=전문선 기자

구독 · 광고문의 288-9700

대한민국 홍삼 특구 진안고원
세계주류품평회 금상
眞心 홍삼주